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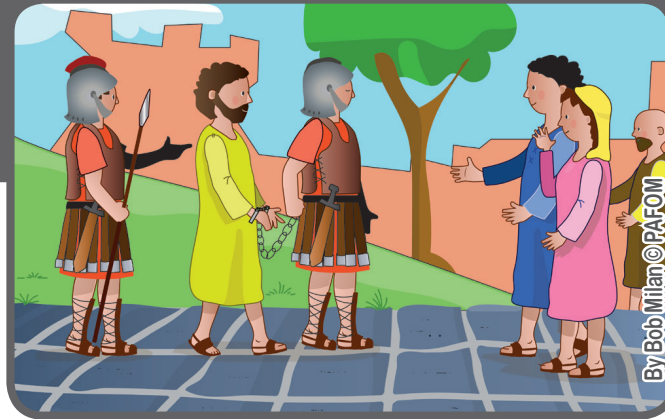


우리는 위대한 승리자예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로마 8장 35절)



여러 곳을 여행하고 로마로 돌아온 바오로는 상처와 배고픔을 당하기도 하고, 바오로를 죽이려는 사람을 피해 도망가야 하는 어려움도 견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바오로는 그의 마지막 생애 하느님께서 자신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오로는 로마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승리자가 될 것이예요.”라고 쓰셨어요.



이탈리아에 사는 에드와르도의 경험담입니다.

에드와르도는 최근에 로마로 이사했어요. 어느 날 할머니께서 에드와르도의 집에 다니러오셔서 온 가족이 함께 콜로세움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에드와르도는 “아빠, 콜로세움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라고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고대 로마시대에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곳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에드와르도는 부모님께 “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참고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라고 말했어요.